

보도	2023.6.22.(목) 11:20	배포	2023.6.22.(목)	
담당부서	포용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	책임자	실 장	허진철 (02-3145-8410)
		담당자	팀 장	지행호 (02-3145-841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BNK경남은행 울산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개소식 참석 및 수출 중소기업 현장방문

I 개 요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6.22.(목) BNK경남은행의 울산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 1호 센터는 '19년 창원에서 개소하였으며, 동 센터는 2호 센터로 울산지역 최초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지원센터임

-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서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지방은행 최초로 체계화(4주과정, 분기 1회)된 자영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 경남은행의 노력을 격려하고
- 앞으로도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개소식 개요

- ☐ (일 시) '23.6.22.(목) 11:20~12:10
- ☐ (장 소) 경남은행 성남동지점 (울산 중구 학성로 소재)
- ☐ (참석자) 금융감독원장, 울산광역시장, BNK금융지주 회장, 경남은행장,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 ☐ 한편, 이복현 원장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논의

※ 울산 소재 수출기업 방문 개요

- ☐ (일 시) '23.6.22.(목) 14:00~14:50
- ☐ (장 소) 울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
- ☐ (참석자) 금융감독원장,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경남은행장, 무역협회 본부장 등

II 금융감독원장 발언 주요 내용

(1) 「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개소식

- 자영업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경제의 버팀목이며, 전체 자영업자 중 과반수*가 비수도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 수도권 외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자영업자 비중(통계청 등) : 51.0%, 56.9%

- 컨설팅센터 등 자영업자 지원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 자영업자 교육과정은 일회성·단기에 그쳐 다소 아쉬웠음
- 이 시점에 경남은행이 울산에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은행 최초로 4주간의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지방은행과 지역 자영업자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것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한 일이며
- 이번 경남은행의 사례를 계기로 다른 곳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좋은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램

(2) 울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 방문

-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 무엇보다 수출 증대가 중요한 상황에서
- 오늘 간담회는 수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음
-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 중소기업이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세무, 회계, 외환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붙임] 금융감독원장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개소식 축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축사 (祝辭)

2023. 6. 22. (목) 11:20

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먼저, 경남은행의

울산지역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센터의 개소를 위해 힘써주신

빈대인 지주회장님과 예경탁 행장님,

그리고 경남은행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두겸 울산시장님과 각 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영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해 주실

전문강사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Ⅱ 지원센터 개소 및 교육프로그램 신설 격려

자영업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과반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도권 外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자영업자 비중(통계청 등) : 51.0%, 56.9%,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센터 등 지원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은행이 울산지역에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를 개소한 것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과정은
일회성 강의나 단기 프로그램에 그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경남은행이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내에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지방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4주간의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하니
지역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소되는 센터가
지역 자영업자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시키는
‘희망 지킴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Ⅲ 맺음말

‘모이면 시작이고,
같이 있으면 발전이고,
함께 일하면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은행과 지역 자영업자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것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경남은행의 사례를 계기로
다른 곳에도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좋은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